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청소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며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서비스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2008년 「부산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정책,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상황에서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는 아동·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다.

이후 청소년과 가족 정책이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졌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분리하여 전국적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는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I·II」, 「부산지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부산 교육종단연구(BELS)」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요구 등이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08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파악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복지욕구의 분석을 통해 부산시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현황 분석이다. 현황 분석의 내용으로는 기본 인구 현황, 관련 법률과 조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체계 등을 다루었다. 둘째, 부산지역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연구인 2008년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의 문항과 전국단위 실태조사의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조사의 문항은 2008년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와 2018년 복지욕구의 변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공통문항과 2018년 보완된 문항, 신규로 추가된 문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근로활동, 아동·청소년의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역사회환경, 청소년 단체 활동 등과 관련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하였고 추진체계 중 신규로 설치된 아동·청소년 시설은 보완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요구사항은 아동·청소년과 기관·단체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부산시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 수립과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청소년 관련 문헌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청소년 통계, 교육통계 등 통계자료, 청소년 관련 법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부산시 청소년 정책시행계획 등 행정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940명과 부모 7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2008년도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부모로 하고, 대학생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초점집단면접조사이다. 부산지역의 아동·청소년과 관련기관·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1차로 2018년 6월 26일 부산지역 청소년기관·단체 실무자 6명, 2차로 2018년 7월 8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8명 등 총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이다. 선행연구자 그룹, 관련 공무원, 지역의 청소년 전문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2018년 4월 9일에 개최하였으며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의 방향 정립, 설문조사의 방향과 구체적인 문항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2018년 8월 8일에 개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방향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3. 연구의 범위와 절차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은 청소년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복지욕구를 파악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연령이 법마다 상이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도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소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부산지역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조사가 없었고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청소년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2008년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복지욕구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모집단은 9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기와 중기의 연령층이며 모집단의 규모는 초·중·고등학생 259,411명(초등학생 79,098명, 중학생 80,414명, 고등학생 99,899명)이다. 설문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310명(0.4%), 중학교 1~2학년 310명(0.4%), 고등학교 1~2학년 320명(0.3%)이 대상이다. 참고로 2008년도 복지욕구조사의 모집단은 초·중·고등학생 523,000명(초등학생 237,000명, 중학생 144,000명, 고등학생 142,000명)이며, 설문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303명(0.1%), 중학교 2학년 316명(0.2%), 고등학교 2학년 306명(0.2%)이 대상이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이외에도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인식의 간극이 크지 않아 응답군간 비교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각각의 응답군 안에서 응답자 특성별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은 성별, 학교급별, 학교급·성별로, 부모는 성별, 연령별, 자녀의 성별과 학교급별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관련 문헌 검토 및 분석</li> <li>- 실태조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검토 및 분석</li> </ul>
설문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이후 청소년 정책 변화 내용 파악</li> <li>-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검토</li> </ul>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설문조사 방향 정립 및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자문</li> <li>- 2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1,650명(청소년 940명, 부모 710명)</li> <li>- 내용 : 청소년 정책의 인지도, 경험, 참여의향 등</li> </ul>
초점집단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청소년지도사) 6명</li> <li>- 2차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8명</li> </ul>
정책제언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정책제언

[그림 I-1] 연구의 절차

## II.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 1. 기본 인구 현황

「청소년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를 말한다. 부산지역의 청소년 인구(9~24세)는 2017년 567,395명으로 부산시 총인구수 3,470,653명(남성 1,709,508명, 여성 1,761,145명) 중 16.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해 보면, 2008년 청소년 인구 745,624명에 비해 178,229명 줄어들었으며 감소율은 23.9%이다. 부산시 총인구수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18.6%, 2014년 18.0%, 2015년 17.5%, 2017년 16.3%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인구수 567,395명 중 남자청소년 인구수는 297,385명(52.4%), 여자청소년 인구수는 270,010명(47.6%)으로 남자청소년 인구수가 27,375명(4.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 현황

한국의 청소년 관련 법률은 청소년을 보호, 선도 그리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법과 청소년에게 걸맞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일반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후자는 특별한 복지적 욕구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에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청소년정책 담당부서는 청소년가족정책실이다. 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활동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활동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이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 185

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58개소, 청소년수련원 189개소, 청소년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15개소, 청소년특화시설 10개소 등이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인 수련시설 이외에도 전국에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이 용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개소, 청소년생활시설로 청소년쉼터 12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6개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1개소,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1개소가 있다.

### 3.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정책 현황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가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5년 마다 법정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시행중이다. 부산광역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18년 부산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비전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이며 목표는 ‘청소년이 존중되고 기회균등한 부산’, ‘자기주도적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이며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지원팀, 아동복지팀, 아동친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이 포함된다. 부산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 청소년수련원 3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청소년야영장 2개소 등 26개소가 있다. 현재 청소년특화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사하구 을숙도 일원에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의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개소, 청소년쉼터 6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5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 5개소 등이 있다.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에 있는 시설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1개소가 있다.

### Ⅲ. 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310명, 중학생 310명, 고등학생 320명, 부모 710명 등 총 1,650명이다.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을 기본 틀로 하여 조사문항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영역으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영역이 있으며 전반적인 청소년의 생활과 청소년 활동 참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근로활동, 지역사회 참여, 권리존중을 다루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의 양이나 학업부담 등의 영향으로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말에는 주중에 모자란 수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수면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공부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고, 자유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자유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에서 남학생을 추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신체활동시간은 적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수면시간, 여가시간, 신체활동시간 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활동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 하는 사회의 책임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 계약시에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과 근로권익 보장을 위해 부산지역차원의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인지도, 참여경험에서 여자중학생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아 여자중학생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의지를 볼 수 있었다. 한편, 2017년 부산시 청소년 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아동·청소년의회는 신규정책임에도 청소년의 인지도면에서 알고 있는 비율이 15%였다.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 설치되어 장기간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인지도와 참여경험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의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는 단기간에

청소년 특별회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부산시의 홍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아동·청소년의회가 상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도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양성평등, 권리존중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2008년도와 청소년의 인식 비교를 할 수 있는 문항이 4개 있다. 2008년과 2018년의 청소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의 재능차이 없음’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5.5%에서 86.8%로 상승하였고,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84.4%에서 94.4%로 상승하였다.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72.1%에서 90.1%로 상승하였고,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73.8%에서 87.8%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영역에서 여가활동, 청소년활동, 진로교육을 다루었다.

첫째,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및 장소에서 평일 방과 후의 여가시간에 우리 집에서 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말·공휴일의 여가시간에는 집에 있는 비중이 줄어들고 여가활동의 장소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서면 등 변화가, PC방, 노래방 등에 집중되고 있어 청소년의 여가·놀이공간의 다양화가 요구되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하기, SNS활동, 여학생은 SNS활동, 인터넷 만화보기의 비중이 높았다. SNS활동과 인터넷 게임하기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여학생은 SNS활동이 58.9%, 중학교 남학생은 인터넷게임하기가 41.4%로 나타나 중학생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청소년이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어려운 점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08년 31.7%에서 2018년 65.4%로 33.7% 상승하여 여가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여가시간이 있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부모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가활동을 평일 방과 후, 주말·공휴일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청소년과 시각차가 있었다.

한편, 청소년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2008년에 비해 6.0%p 상승하여 2018년 61.2%로 나타났으나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일수가 5일 이상이 2008년 7.5%에서 2018년 11.0%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의 방과 후 시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의 청소년자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활동은 과학정보, 교류, 모험개척, 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탐구, 자기계발, 환경보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인지도는 자원봉사활동이 67.8%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 활동을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참여경험은 진로탐구활동이 5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향후 참여의향에서도 진로탐구활동이 49.0%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개별적인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별, 학교급·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경우, 청소년 활동 중 진로탐구활동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의 인식과 동일하였다. 이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진로탐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청소년 활동 이외에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은만큼 참여경험도 적은 편이었으며 참여의향도 30~40%정도였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참여의향이 남학생에 비해 높아 남학생의 참여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 활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 활동과 관련사업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

부모의 경우, 남학생 부모가 여학생 부모에 비해 청소년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 설문에서 남학생의 참여의향이 낮은 부분과 대비되는데 남학생의 참여의향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높았는데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부담으로 청소년 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 부분에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경험률은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84.1% > 진로관련 검사 75.9% > 현장학습이나 견학 75.6% > 인터넷 및 동영상 61.0% > 진로 체험 프로그램 6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있을시 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 94.5% > 유명인사 등 초청강연 94.4% > 재량활동 93.8% > 진로관련 검사, 진로박람회 9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90%를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진로교육의 방법은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이나 활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운영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수련관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연계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자신의 적성’이 38.3%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능력’이 36.4%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청소년이 장래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청소년 적성·흥미 조기 발견’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부모 모두 진로·직업 선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적성·흥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할 때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공급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영역에서 사회안전망,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성인물, 스마트폰 등을 다루었다.

먼저 사회안전망 속에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다루었는데,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의 고민거리 1순위는 46.9%가 ‘학업 문제’로 응답하였다. 2008년과 비교문항으로 2008년도 청소년의 고민거리 1순위도 ‘학업문제’였다. 2008년에 비해 외모, 교우관계 문제의 순위가 근소한 비율로 높아졌다. 부모의 경우도 청소년 자녀의 고민거리 1순위는 학업문제가 차지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고민거리 2순위로 중학생과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는 ‘고민거리 없음’으로 응답하여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인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 고민거리 의논대상은 어머니가 1순위였다. 2008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12.4%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고민거리를 털어놓거나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포기해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고민거리 의논대상으로 청소년전문상담가와 온라인상담가는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아직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경험은 ‘피해만 경험’ 8.5%, ‘피해와 가해 모두 경험’ 2.3%, ‘가해만 경험’ 1.5%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남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실을 알린 대상은 부모 혹은 주변 어른, 가까운 친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상담 및 신고전화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주요하게 다룬 것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이용, 성인물 시청 등이다. 청소년의 컴퓨터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41분, 주말 1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컴퓨터 평균 이용시간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일 1시간 22분, 주말 3시간 35분으로 제일 많았다. 한편, 부모에게는 자녀의 컴퓨터 사용 지도방법, 사용시간 제한방법을 질문하였다. 2008년도에는 ‘사용시간 제한 등으로 지도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은 ‘자율성

을 믿고 별도 지도 안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해서도 2008년에 비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8년 현재의 부모들은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을 문화로 받아들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2시간 34분, 휴일 4시간 11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16분, 휴일에는 5시간 22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에 대한 미디어과의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나아가 아동기부터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몰입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사용습관, 사용규칙 등을 정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부모 대상으로 스마트폰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 경험은 26.6%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성별로는 남학생의 시청 경험이 많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청경험이 많았다. 성인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초등학교 남학생이 1주일 평균 4.2회로 가장 많았다. 성인물 중 음란물은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학교급별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영역에서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부산시 청소년 정책을 다루었다.

첫째, 청소년에게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지도,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향을 질문하였다. 청소년의 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도서관 78.1% > 공연시설 73.5% > 전시시설 70.3% > 청소년수련원 65.0% > 청소년수련관 59.1% > 수목원 58.7% > 사회복지관 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참여경험은 도서관 77.8% > 공연시설 77.4% > 전시시설 75.6% > 청소년수련원 69.4% > 청소년수련관 64.9% > 수목원 64.5% > 유스호스텔 6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의향은 진로교육지원센터 47.5% > 청소년야영장 45.5% > 공연시설 43.0% > 수목원 42.6% > 청소년문화의집, 전시시설 4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참여의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적극성, 참여의지를 이끌어낼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들은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중 '도서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참여 경험률과 향후 참여의향의 비율도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의 홍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중요한 홍보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기관·단체의 홍보자료 등을 '도서관'에 적극 배

포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 거주에 대한 청소년의 자부심은 ‘자랑스럽다(자랑스러운 편이다+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5.3%로 나타났고 학년이 낮아질수록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보면, 청소년은 2008년 77.3%에서 2018년 85.3%로 부산시 거주에 대한 자부심 비율이 8.0%p 상승하였다. 부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는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다+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8.5%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알고 있다’의 응답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학생이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보고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부산시 거주에 대한 자부심도 2008년에 비해 17.0%p 상승한 82.0%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산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는 38.5%로 2008년에 비해 8.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를 복돋을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부산시가 청소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청소년과 부모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였다. 청소년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여가활동 장소가 우리 집 이외에 PC방, 노래방, 서면 등 변화가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 공공 유흥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 2. 초점집단면접조사

연구의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청소년기관·단체 실무자 6명, 초·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의 권리 강화, 인성 함양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할 부분, 청소년활동 경험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향후 부산시가 청소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등이었다.

### 1) 부산지역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추진하거나 지원할 부분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부산지역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활성화되어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기구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의회와 함께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의견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은 여가시간이 그다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우므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필요하다. 학교 내의 청소년은 교육청, 학교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며 일선교사나 학교장에 대한 홍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전반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

은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큰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를 매개로 한 홍보방법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방영,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영상홍보물 제작 및 동영상공유사이트에 게시 등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관·단체를 알리기 위해서는 SNS 홍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 2) 부산지역 청소년의 인성 함양,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할 부분

청소년의 권리 강화, 인성 함양,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그와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의식교육, 양성평등 및 젠더폭력예방교육, 근로권익보호교육 등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이 중요한 만큼 대규모 집합 교육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권리,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이 소규모의 면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강의 형태만이 아니라 연극제, 토론대회, 글짓기대회 등의 방식 도입 등이 요구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 3) 부산지역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활동을 진로체험과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면서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를 채워줄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청소년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거나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진로체험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지 못하므로 청소년의 선택권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때문에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선호도의 차이나 성별 고정관념 극복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부산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의 이용 활성화 방안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청소년 기관·단체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의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오히려 주변의 청소년 기관·단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으므로 청소년 기관·단체를 알림으로써 기관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기관·단체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홍보, 학부모의 입소문, 지역사회 기관 또는 인적자원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 기관·단체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진로 체험에 대한 보강 등 청소년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지원 속에는 청소년 기관·단체의 시설 자체에 대한 기능보강 이외에도 내부의 설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5) 향후 부산시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분야

청소년 활동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의 확대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청소년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힘든 상황이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약하여 근로기간이 짧다. 이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기존의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장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위생용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진로체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진로·직업 체험장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의 이용 활성화와 연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기관 이외에는 진로체험과 연계된 활동공간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정책 제언

###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1) 청소년 참여와 활동기회의 제공 확대

청소년의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참여와 활동기회의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중이다. 청소년 참여기구로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이외에도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같은 형태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2017년부터 아동·청소년의회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회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응답자 중 1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연계하여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에서 아동·청소년의회의 홍보시 청소년 참여기구의 내용을 통합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나 활동기회의 통로로써 청소년 참여기구, 아동·청소년의회가 있다는 내용을 매년초에 일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 2)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실시

부산지역 차원의 정기적인 청소년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청

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부산지역 청소년의 인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부산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일하는 환경이 건전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사회의 책임과 관심이 함께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부산지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1)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의 확대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의 장려를 위해 청소년시설의 설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놀이를 즐기면서 청소년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대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신규 시설의 설치, 현재 청소년 시설의 재정비, 공공 유흥시설의 기능전환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산지역의 청소년 시설의 갯수나 위치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규 시설 설치나 공공 유흥시설을 점검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부산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기관·단체 중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2)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방과 후 초등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1주일에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가 61.2%로 나타났지만, 혼자 집에 있는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도 11%나 되었다. 특히 초등학생(310명) 중 10.6%(33명)가 1주일에 5일 이상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에서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부산시내의 206개 읍·면·동 전체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차원의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의 유형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 3)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진로체험 중심의 진로탐구활동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활동 중 청소년의 진로탐구활동 참여가 53.6%로 나타났고 향후 참여의향은 49.0%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학교에서 얻고 있지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은 ‘청소년수련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은 본인의 진로문제에 관심이 많고 진로·직업 선택시 자신의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기관·단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기관·단체가 진로체험과 청소년 활동을 접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진로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

### 1) 청소년 온라인 고민상담소 강화

현재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전화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상담, 모바일을 이용한 문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는 41.5%였으나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참여경험률은 12.1%, 향후 참여의향은 33.7%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전화 1388의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을 고려하여 모바일앱과의 연동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청소년 온라인 고민상담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수칙 배포

부모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수칙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2시간 34분, 휴일 4시간 11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16분, 휴일에는 5시간 22분으로 학교급·성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산지역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SNS활동과 인터넷 게임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인터넷 게임하기, SNS활동의 비율이 중학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중학생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아동기부터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사용습관, 사용규칙 등을 정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 대상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수칙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배포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 1) 부산시 청소년 정책 홍보 강화

부산시 청소년 정책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산시의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의 청소년 정책이나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의 38.5%, 부모의 32.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설문에서 부산지역 청소년은 국가나 부산시가 시행하는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 받은 경험 비율이 35.1%로 나타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나 부산지역 청소년 기관·시설 전반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과 부모 대상 설문에서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인지도, 참여경험, 향후 참여의향을 질문한 결과, ‘도서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참여경험률과 향후 참여의향의 비율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청소년 대상의 홍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중요한 홍보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기관·단체의 홍보자료 등을 ‘도서관’에 적극 배포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사업 실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인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을 통해 자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표준화된 임금기준표가 없고 임금 수준 또한 유사업종인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해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지도사가 진로체험,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